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July 04, 2012

Biweekly Report

- 2** Apple vs. Google: Starkly Different China Experiences
정근우,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4** Chinese Data Mask Depth of Slowdown, Executives Say
서성웅, from The New York Times
- 6** Pinterest Not Manly Enough for You? Try These Sites, Bro
김주찬, from CNN
- 8** The Hollow Men
심수연, from The Economist
- 11** U.S. Banks Aren't Nearly Ready for Coming European Crisis
장은혜, from Bloomberg Businessweek
- 13** The Cloud of Uncertainty: Dithering in the Dark
이주현, from The Economist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6** Despite Crisis, Cost of European Soccer Rights Rises
강민경, from The New York Times
- 20** Courting the Chinese Buyer
진나현,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Apple vs. Google: Starkly Different China Experience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6.12\)](#)

* 요약자: 정근우 (monhghg@hanyang.ac.kr) * 키워드: 중국 시장, 시장선점우위, 애플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글과 애플의 행보”

□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구글은 빠른 침투 전략을 펼치는 반면, 애플은 신중하게 시장 진입을 살피는 등 서로 다른 방식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

- 2005년 구글은 이미 구글 차이나를 설립하며 중국 시장에 빠르게 침투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시장선점우위(first-mover advantage)'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 주목적
- 반면 애플은 2008년에 이르러서야 베이징에 첫 매장을 설립하는 등 천천히 시장 진입을 모색하였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
 - 현재도 베이징에 2개, 상하이에 3개의 매장만이 존재

□ 하지만 구글은 중국 시장 진출에 있어 중국 지사장 임명 문제, 인터넷 검열, 불완전한 번역 시스템 등 세 가지 실수를 범했으며, 결과적으로 빠른 침투 전략에 실패

- 구글은 중국 최대 포털검색 기업인 바이두(Baidu)를 따라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였으나 중국 지사장 선임에서부터 문제 발생
 - MS의 임원이었던 리카이푸를 중국 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두고 MS와 4년 간의 긴 법정공방에 휘말림
- 또한 구글은 중국의 인터넷 검열을 통과하지 못해 중국 본토 외부에 포털 서버를 배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신들의 대중국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됨
 -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비롯한 해외의 언론 자유주의자들에게 호평을 받았지만, 중국 정부의 반감을 사는 계기가 됨
- 게다가 중국 시장에서의 빠른 침투를 위해 'Google'과 발음이 비슷한 'Gu-Ge'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중국 사용자들은 어색한 번역에 거부 반응을 보임

- 이와 같은 문제점들로 구글은 시장선점에 실패하였고, 그 결과 중국 포탈검색 시장에서 1위 바이두의 시장점유율 78.5%에 크게 못 미치는 16.6%를 차지하는데 그침

□ **반면 애플은 신중한 공급업체 선정, 적절한 현지화 구축과 같은 지연전략을 수립한 결과, 까다로운 중국 공산당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며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

- 애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내 최적의 아이폰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데 주력
 - 중국 1위 이동통신업체인 China Mobile과 협상 파기를 계기로 여유 있는 협상을 통해, 2위 업체인 China Unicom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의 협력을 이끌어냄
 - 이후 두 번째 공급자인 China Telecom과 계약 체결에도 성공
- 중국 내 3G 사용에 문제점이 많다는 점을 파악하고 Wi-Fi 기능이 있는 아이폰을 공급하였고, 이는 중국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며 급격한 수요 창출
- 또한 중국어로 'Apple'과 동일한 의미인 'Pingguo'로 사명을 정하여 중국인들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함
- 6월 11일 열린 세계 앱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의 임원들은 중국 사용자들의 환경에 맞는 현지화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한편, 그 동안의 지연전략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

□ **전문가들은 무조건적 빠른 수익 창출을 지양하고, 보다 안정적인 방법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한 애플의 사례를 성공적이라 평가**

- 올해 1분기 애플 매출의 약 20%를 중국 시장이 차지함에 따라 진출 4년 만에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으로 성장
- 물론 증가하는 중국 내 수요에 빠르게 대처하지 못해 더 많은 수익을 거둘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중국 시장에 대한 애플의 접근 방식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구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해외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은 중국 시장에서 애플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중한 현지화 전략 때문 **FBI**

Chinese Data Mask Depth of Slowdown, Executives Say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6.22\)](#)

* 요약자: 서성웅 (ssw35@hanyang.ac.kr)

* 키워드: 중국 경기둔화, 통계 위조

“경기둔화를 숨기고자 위조된 중국의 통계 지표”

□ 중국 고위 공무원들이 중국의 심각한 경기둔화를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전력 관련 통계수치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남

- 일반적으로 전력 생산과 소비는 다양한 경제활동의 증표로 여겨져 왔으며, 해외 투자자 및 정책 전문가들에게 있어 전력의 생산 및 소비 지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주는 금본위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 옴
- 그러나 최근 전력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로 인해 발전 원료인 석탄 재고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발전소장들로 하여금 이 사실을 숨기도록 강요한 것이 적발됨
 - 실제로 몇몇 지역의 공무원들은 생산량, 기업 수익과 이익, 세금 영수증 등을 과장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내부사용목적의 실제 장부와 외부보고목적의 조작된 장부를 분리, 유지할 것을 강요
- 중국 경영·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부정확한 통계수치들은 다양한 경제 관련 지표들을 1~2% 가량 잘못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통계수치 위조는 좋은 경제성적을 내고자 하는 압박으로부터 기인한 것


- 중국 정부의 모든 공무원에게는 좋은 경제성적을 내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존재
 - 이는 중국 정부가 그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승진과 강등 그리고 근무지를 결정하기 때문
 - 특히 올해는 1989년 이후 10년에 한 번 있을 법한 국가 최고 지도자 교체와 급격한 경기침체가 맞아떨어진 해
- 한 사례로 중국 전력부 최고책임자는 실제로 전력 사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기록하도록 했다고 진술

- 다른 사례로 산동성과 장쑤성의 한 민간 전력 업체의 전문가에 따르면 5월 실제 전기소비량은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의 통계학자들은 전기소비량이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 거짓 보고
 - 또한 대표적인 세 항구의 발전 원료 재고량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 정부통계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경기 지표, 기업들의 매출 하락,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등 여러 방면에서 중국의 경기둔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통계수치 위조에 대한 단서가 됨

- 왜곡된 고정자산투자, 산업생산지수, 전력생산량 등의 지표 조차도 이미 중국이 경기둔화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줌
- 실제로 일부 건설자재 및 소비재 도매업체들은 매출이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9년보다도 낮다고 언급
- 또한 중국 중앙은행이 그 동안 금융시장에 경제 관련 우울한 소식들을 알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초 갑작스럽게 금리를 낮춘 것에 대한 단서가 됨
-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들의 몇 년에 걸친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국 통계학자들이 경제 호황기의 성장을 과소 보고하고 침체기에는 성장을 과대 보고함으로써 분기별 성장률이 고르게 보이도록 조작

□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중국 경제를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을 모두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전력 관련 지표에 관해서는 조작될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 표명

- 과거부터 중국 공무원들은 대다수 중국 경제 통계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옴
 - 지난 2007년 유력한 중국 부총리 후보자 리커창은 중국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사람이 만든 것'으로 간주하며 믿을 수 없다고 언급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전력소비량, 철도화물량, 은행대출액과 같은 주요 세 가지 지표에 대해서는 조작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주장 

Pinterest Not Manly Enough for You? Try These Sites, Bro

* 기사출처: [CNN \(2012.06.22\)](#)

* 요약자: 김주찬 (kjcjuchan@hanyang.ac.kr)

* 키워드: 남성 커뮤니티, 핀터레스트

“여성 중심의 핀터레스트(Pinterest) 성공에 이은 남성 SNS들의 출현”



□ 대표적인 여성 위주 SNS인 핀터레스트의 성공에 자극 받아 최근 남성 위주의 SNS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는 추세

- 핀터레스트는 2,000여 만 명의 회원 중 여성이 전체 회원의 83%를 차지할 만큼 여성 위주 SNS로 성공한 첫 사례로서, 시장가치는 약 15억 달러로 추정되며 텀블러, 페이스북에 이어 이용자들이 세 번째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SNS로 발전
- 최근 전통적인 남성성에 대한 관념이 모호해지면서 Dudepins, Manteresting, PunchPin, Gentlemint, Dartitup 등 남성 이용자를 겨냥한 SNS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등장

핀터레스트 (Pinterst)

'핀(Pin)'과 '흥미(Interest)'가 합쳐진 조어인 핀터레스트는 2009 년 예일대 출신의 벤 실버먼이 "온라인에 냉장고 메모판처럼 다양한 것을 수집해 친구와 가족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겠다"며 만든 신생 SNS 다. 글이 관계 형성의 수단이 되는 트위터, 페이스북과 달리 이미지와 동영상이 관계를 형성하는 구조이며, 게시 이미지에는 기사나 블로그 글을 연결시키는 링크도 달 수 있다. 2,000 만 명이 넘는 이용자중 83%가 여성이며, 여성위주의 관심사가 주를 이룬다.

출처: 위키피디아


□ 이러한 남성 위주의 SNS들은 핀터레스트와 차별화된 독특한 방법으로 많은 남성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유치

- 웨딩드레스 사진 대신 오토바이나 여성 사진 등 남성들의 흥미를 끄는 불거리들을 게시하고 남성스러운 디자인과 어휘를 선택함으로써 핀터레스트와 대조되는 남성성을 부각
- Dartitup은 남자들의 밤(A guy's night out), Manteresting은 추천과 비추천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각 SNS별 차별화된 방법으로 남성스러움을 어필

□ 그러나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남성 위주 SNS는 성공과 동시에 한계를 드러냄

- '남성스러움'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공유함으로써 성 정체성을 고무시키지만 성적인 고정관념을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
- 한편으로는 동성애자나 여성혐오주의자, 또는 성차별적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함

□ 이에 따르는 핀터레스트의 대응 전략은 기존 여성 이용자 중심의 기초를 유지하는 것이지만 향후 남성 이용자 비율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여성들의 관심사가 공유되는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으며, 여성 중심이라는 점은 핀터레스트의 중요한 정체성
- 그러나 SNS의 특성상 특정인에 대한 가입거부가 불가능하고 다수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본질인 만큼, 향후 남성 이용자들도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페이스북 역시 초기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감 

The Hollow Men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6.09\)](#)

* 요약자: 심수연 (syegoist@hanyang.ac.kr)

* 키워드: 산업 공동화, 엔고 현상

“일본의 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 속 희망적 평가”

□ 일본 기업들의 독특한 경영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산업 공동화 현상의 진행을 가속화

- 일본은 시장에서 세계화를 수용했지만 자신들의 경영 방식만은 고수
 - 과도한 위험 회피 경영, 신중한 의사 결정 방식, 수익성 위주의 시장 점유율에 중점을 둔 결과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이는 일본의 산업 공동화 현상을 촉진
- 일본 제조회사의 1/5 가량이 해외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 산업에서 그 비율은 30% 이상이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50%를 훨씬 상회

산업 공동화(deindustrialization , 産業空洞化)

산업의 해외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서 국내 생산여건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제조업의 해외 현지생산 등 해외 직접투자가 진전되면 해외에서의 고용, 시설 등 산업 여건은 좋아지지만 그만큼 국내에서의 생산이 줄어들고 산업이 쇠퇴할 우려가 있다. 해외진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국내에 비해 저렴한 노동력과 잘 정비된 공업단지,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방대한 시장 등 해외시장이 주는 매력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10 년의 장기 불황으로 기업들의 해외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사전

□ 산업 공동화 현상의 한 원인으로, 수년 동안 지속된 엔고 현상이 지목됨

- 일본의 거대 전자회사인 소니는 유로화 대비 엔화 가치가 1엔 절상될 때마다 영업 이익이 60억 엔(약 7,300만 달러)씩 감소
- 소니는 달러 기준 비용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달러-엔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만 유로화의 경우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환위험에 노출

□ 또한 현재 일본의 가장 큰 문제인 원자력 발전 중단으로 인해 더 이상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이 불가능

- 5월부터 일본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없이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위기에 처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전,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 전력의 대략 30%를 공급했으며 이를 50%까지 증가시킬 예정

□ 일본의 여러 내외부적 요인들이 내수 시장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

- 내부적으로 지진 발생 위험, 인구 감소, 높은 법인세 그리고 노동 시장의 경직성은 내수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
- 외부적으로는 일본 정부가 자유무역 협정 체결에 있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내수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

□ 그러나 해외 이전의 단점들이 부각되면서 향후 산업 공동화 현상이 악화되지는 않을 것

- 중국의 경우 인건비 상승,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경기 침체,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의 문제가 존재
- 일본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던 태국은 지난 대홍수로 인해 생산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자국 내 쓰나미 피해와 더불어 이중고가 됨
- 따라서 현재 일본 기업들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을 할 마땅한 국가를 찾기 어려운 상황

□ 이러한 이유로 자국 생산의 매력에 상대적으로 부각되는데, 대표적으로 도요타는 일본 내 생산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표

- 도요타는 올해 생산할 960만대 자동차 중 340만대는 일본서 생산할 것이며 그 절반은 수출할 것이라 밝힘
- 이는 숙련된 일본의 노동력 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정 또는 일본 경제의 부활

을 위한 국가적 임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됨

□ 결론적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은 비관론자들의 우려만큼이나 일본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물론 과거에 일본은 산업 공동화에 따른 수출 감소, 수입 증가, 그 결과로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
-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일본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 산업, 화학 약품, 소비재의 원재료와 같은 틈새 시장 개척에 활발히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엔고 현상은 소득수지 흑자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님
 - 해외로 나가 경쟁력을 회복한 기업은 이익 배당 등의 형태로 일본에 환원하고 있기 때문 **FBI**

U.S. Banks Aren't Nearly Ready for Coming European Crisis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6.25\)](#)

* 요약자: 장은혜 (avechs@hanyang.ac.kr)

* 키워드: 유럽 경제위기, 유로존 붕괴

“유럽 경제위기의 영향력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유럽의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 유로존은 주요 국가의 경제위기와 더불어 채무불이행 은행 및 국가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상황
- G20은 유럽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적절한 대책 마련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현재 제안된 해결책들은 '그림의 떡'으로 여겨지며 유로존의 붕괴 가능성은 높아져가고 있음
 - 심지어 낙관주의자들조차 유럽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훨씬 악화되어 수면 위로 떠오를 즈음에서야 때늦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 이처럼 유로존 붕괴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면서 투자자들과 규제당국, 정부는 금리 및 신용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유로존 해체에 대한 문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유로존이 붕괴되며 유로화가 폐지될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 간 논쟁, 화폐 단위 통일 등 범세계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가장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유로로 책정된 계약과 관련한 채무 및 채권상환에 대한 것으로, 국경을 넘어선 장기적 법적 논쟁의 가능성도 제기됨
 -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거의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
- 뿐만 아니라, 각국의 대차대조표와 같은 재무 상태 파악을 위한 도구의 적합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유럽중앙은행(ECB)이나 미국의 경우 규제의 강도가 달라서 각 규제에 따른 결과는 큰 차이를 보임

□ 이에 대비하여 주요 유럽 은행들은 자본 수준을 높이고 확충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

- 스위스 2위 은행인 크레디트 스위스는 유로 지역의 해산에 대비하여 배당금을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본수준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
- 영국 은행들의 경우, 긴급유동성시설을 설치하고 자본확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보임

□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은행 역시 유로존 붕괴에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음

-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 결과 미국은행들이 유로존 붕괴 위험과 글로벌 파생상품시장의 영향력을 견딜 역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
- 그러나 연방준비은행도 긴급유동성시설 확충과 이사회 내 배당금지를 통한 자본 축적 등의 준비가 필요 **FBI**

The Cloud of Uncertainty: Dithering in the Dark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6.16\)](#)

* 요약자: 이주현 (bmsgbhog@hanyang.ac.kr)

* 키워드: **정치적 불확실성, 계량화**

“세계 경제에 미치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력을 계량화 한다면”



- 유럽과 미국의 경기불황, 중국의 성장 둔화 속에서 세계 경제의 운명은 각국 정치적 행보의 불확실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유럽의 운명은 부채 상환과 은행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각국 정치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으며, 미국 역시 정치적 기능 장애로 인해 금년 말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릴 위기에 봉착
 - 중국마저도 아직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지 않는 않지만 정부가 성장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이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애매하고 변덕스러운 의사결정은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며 이는 더 많은 비용을 초래
- 유럽과 미국의 불황을 필두로 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년 말 미국 대선 전까지 점점 심해질 것으로 추측됨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계량화 필요성이 제기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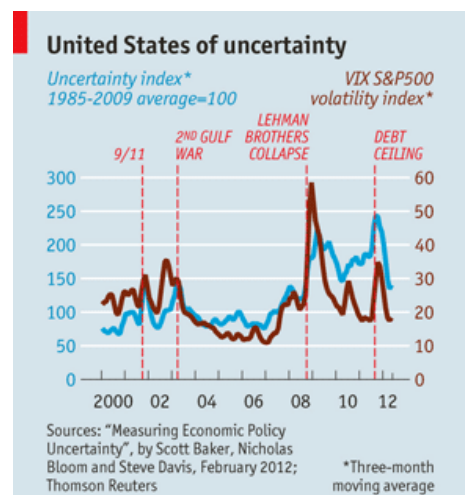
- 유럽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은 유럽 재정위기 속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잠적
으로 보류한 상태
- 미국 역시 재정적인 벼랑 끝으로 추락한다면 GDP의 5%에 해당하는 재정적 압박
을 견뎌내야 할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를 불황으로 밀어 넣기에 충분한 수치
 - 지난 여름 미 정부의 부채 비중이 상한선에 육박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과 공
화당 의원들은 재정에 관한 견해를 좁히지 못함
 -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세금 감면 정책이 만료되는 것과 비슷한 시점인 올
겨울, 재정지출삭감안을 제시하며 불확실성을 확대
- 거대한 두 경제 집단의 불황은 다가올 11월 6일 미국 대선 전까지는 해결되기 힘
들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불확실성에 대한 계량화 요구가 증가해 옴
 - 1980년대 버냉키는 투자와 성장이 불확실성에 종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공식
화
 - 투자는 되돌릴 수 없는 성질을 가지기에 불확실성은 투자자들이 새로운 정보
를 기다리게끔 유인하고, 고로 투자율의 움직임을 더디게 한다는 것이 골자

□ 불확실성을 계량화하기 위해 스탠포드 대학교의 닉 블룸과 그의 동료들은 '불확실성
지표(Uncertainty Index)'를 구축

- 불확실성과 관련된 정책의 언급, 세금에 대한 일시적 수정의 횟수, 각 전문가들이
예측한 인플레이션과 연방 소비 예측치의 차를 합한 값을 지표에 반영
- 또한 불확실성 지표를 성장 모형에 반영하여 금리와 주가를 조정하는 방법을 통
해 순수한 경제적 요인들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


□ 이 지표에 따르면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난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였
음을 보여줌

- 미국의 국가 부채 한도 논쟁이 발생한 작년 여
름, 우측의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불확실성 지
표는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현재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
 - 유럽의 불확실성 지표 또한 매우 높은 상
태



- 반면 우측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주식가격의 변동성을 보여주는 VIX 지표는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한 2009년을 최고점으로 이후 하락하였음
- 2006년에서 2011년까지 증가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질 GDP의 3.2% 감소와 230만 개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다고 해석됨

□ **하지만 불확실성이 경제 불황을 직접적으로 초래한다기 보다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성장 둔화가 다소 연관이 있다는 논리 정도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 많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경제적 충격에 대한 반응인 경우가 대다수
 - 만약 폭락하는 부동산과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불황 속에서 정치인들이 확고한 결정을 내렸다면 훨씬 더 큰 경제적 위기를 낳았을 것으로 추측
- 현재의 극한에 치닫는 정책들은 불확실성을 한없이 높이며 부담을 더하지만, 불황을 가중시킬지 혹은 이겨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 

Despite Crisis, Cost of European Soccer Rights Rise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6.24\)](#)

* 요약자: 강민경 (hannah1116@hanyang.ac.kr)

* 키워드: 유럽축구, 중계권 시장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성장하는 축구경기 중계권 시장”



□ 유럽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인상되는 축구 중계권료

- 지난 6월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3년 계약을 이전보다 72% 인상된 금액인 30억 파운드(약 47억 달러)에 체결
- 독일 분데스리가 역시 몇 주 전 4년 계약을 이전보다 52% 인상된 32억 달러에 체결
- 이와 같이 축구경기 중계권 시장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달리 시장은 오히려 성장세

□ 그러나 이는 유럽 북부지역 리그에 한해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며 유럽의 경제적 지형과 마찬가지로 유럽 축구도 크게 북부-남부로 분리됨

- 유럽 5대 축구리그(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중 영국이나 독일 등 북부 지역의 리그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
-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부 지역의 리그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지 못한 상황
 - 프랑스는 차기 시즌의 중계권료가 오히려 하락
 - 이탈리아는 아직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으며 스페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유럽 북부지역의 중계권 시장이 활발해진 이유는 그들의 TV방송 산업구조에 기인

- 유럽에서는 미국과 달리 협소한 광고시장의 규모로 인해 대형 프로축구 경기가 대부분 유료 텔레비전에서 중계됨
 - 유럽 시장은 수십억 단위의 계약자금 충당을 위한 충분한 광고 수익을 확보하기에는 작은 규모
 - 반면 미국 시장의 커다란 규모는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의 무료 중계를 가능케 함
- 더구나 유럽의 TV 광고시장 침체로 중계권 시장은 가입자들의 유료 요금에 더욱 의존하게 됨

□ 이와 같은 유럽 축구 중계권 시장에서 최근 유료 방송사 Sky의 각국별 독주가 주목됨

- 천만 명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영국의 유료 방송사 BSkyB(British Sky Broadcasting)의 경우, 1992년부터 영국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소유해왔으며 축구 중계방송을 고객에게 어필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활용
 - 계속되는 Sky의 시장지배에 도전하고자 올해 BT(British Telecommunications company)가 중계권 매입에 공격적으로 임하였으나, 1년 간 상업성이 높은 38경기만을 가져가는 것에 그침
- 독일의 Sky는 유료 텔레비전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분데스리가에 대한 독점권을 가져가기 위해 높은 가격에 입찰하였으며, 그 결과 2013년부터 4년간 분데스리가 중계권 전체를 단독 소유
 - 그러나 독일인들은 유료 TV방송 가입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이며 영국보다

1.3배 가량 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300만 명에 불과

- 이탈리아 역시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계약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Sky 이탈리아가 세리에A의 주요 중계방송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예상

□ **한편 스페인 중계권 시장의 경우, 축구 구단과 방송사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스페인은 각각의 구단이 TV 중계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이 적은 시장
 - 다른 지역에서는 리그에 의해 집단 협상이 이루어짐
- 작은 구단들은 이러한 구조가 레알 마드리드나 FC 바르셀로나와 같은 부자 구단에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에 불만을 토로해 옴
 - 이 두 개의 구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부유해지고 있으나 나머지 구단들은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시장구조를 세세히 분석해 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일주일에 단 한 경기를 무료로 방송하도록 방송법에 제정되어 있는데, 이를 유료 TV로 전환 시 리그는 추가적인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페인의 실업률이 25%를 넘나들고 유료 TV가 아직은 스페인 국민들에게 사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무료 방송이 없어질 확률은 낮을 것으로 추측

□ **이와 같이 치열한 유럽 축구 중계권 시장 현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영국과 독일의 새 계약은 리그의 입장에서는 대성공이지만, 투자자들은 방송사가 얻는 수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프리미어리가 뜻밖의 횡재를 거두었다는 뉴스가 나간 후 Sky와 BT의 주식은 하락
- 영국 코벤트리 대학교의 한 스포츠경영전략 교수는 중계권을 구입하는 것과 수익을 창출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는 그리 강하지 않다고 언급
 - 많은 미디어 기업의 시각에서 보면 중계권은 아주 매력적인 상품

- 중계권 시장이 갑자기 이전보다 더 개방적이고 경쟁적이 되었으며, 이것이 중계권의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봄
- 한편 런던 스크린 다이제스트의 수석 분석가는 중계권을 중계스포츠의 왕관에 박힌 보석과 같은 권리라 표현
- 스포츠 뉴스정보 서비스 업체인 스포트컬의 한 미디어 연구원은 이러한 중계권이 유료TV방송 사업 모델의 중심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
- 이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입찰자들이 중계권 소유를 지키거나 혹은 쟁탈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는 점에 기인하여 중계권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비가시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FBI**

Courting the Chinese Buyer

* 기사출처: [The Wall Street Journal \(2012.06.21\)](#)

* 요약자: 진나현 (skgus128@hanyang.ac.kr)

* 키워드: 미국 부동산, 중국인

“미국에서 불고 있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열풍”



□ 최근 미국 부동산 시장 내 초호화 저택들을 거리낌 없이 매입하는 중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

- 고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LA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의 초호화 저택을 다량으로 매입
 - LA의 부촌인 베벌리힐즈의 베르사이유 스타일의 맨션을 어느 중국인 부부가 3,450만 달러(한화 약 400억 원)에 매입해 화제가 됨
 - 한 층에 5,000만 달러인 뉴욕 초고층 호화 맨션 One57의 여러 층을 한 중국 부자가 한꺼번에 매입하기도 함
- 최근엔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던 지역으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임
 - 중국에게 위험지대라는 인식이 강했던 플로리다는 최근엔 인기 있는 부동산 지역으로 변모

□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중국인 저택 매입자는 크게 4가지로 분류

- 투자액 기준으로 볼 때, '슈퍼 부자'는 개인 용도로 1,5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사는 부류를 뜻하며, 다른 하나는 수백만 달러 정도를 투자하는 부류를 의미
- 투자목적 기준으로 보면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정도의 저택을 사서 재임대하는 부류와 상업적인 전략으로 여러 채를 무더기로 매입하는 부류로 나뉨

□ 따라서 미국 부동산 업체들은 이러한 신규 매입자들을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

- 중국인들의 성향과 그들의 전통을 중시하는 부동산 패키지를 개발하는 추세
 - 건물에 중국식 부엌을 만들고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한 저택을 개발
 - 8을 행운의 숫자로 여기는 중국인들의 믿음에 기반하여 빌딩의 초호화층을 80층에서 88층으로 개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
- 부동산 업체들은 정부의 외국인 투자 장려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한 부동산 패키지 상품을 개발
- 부동산 중개인들은 대리인 자격으로 중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중국어 통역자 또는 중국인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수행

□ 부동산 업체와 더불어 호텔 등의 숙박 관련 업체들도 중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 LA 도심에 위치한 리츠 칼튼 레지던스의 구매자들의 절반 이상은 아시아인
- 리츠 칼튼 레지던스의 브로커들은 중국인 고객들을 초청해 호텔에서 이들을 무료로 머물 수 있는 이른바 '환태평양 플랜'이라는 프로그램 제공
 - 아시아 구매자들에 대한 리츠 칼튼 레지던스의 마케팅 전략의 일환
 - 항공 요금만 지불하면 샴페인 축배 등의 혜택을 제공

□ 이렇듯 급성장한 중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부동산 매입액은 지난 1년 간 약 90억 달러에 달함

- 미국 부동산중개인협회 자료에 따르면, 이 수치는 2010년에 비해 89%나 상승한 것으로 이는 외국인 투자자 비율이 캐나다인 다음으로 높음을 암시
- 그러나 부동산 중개인들은 이 수치가 개인 매입을 제외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다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일 것으로 예상

□ 미국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이유로는 미국의 부동산 위기와 위안화 강세,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이 거론됨

- 미국의 부동산 위기로 가격 거품이 사라진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요인이자 기회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2010년 6월부터 달러 대비 7%나 상승한 위안화의 강세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
- 중국 당국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한 번에 여러 채를 매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보 비율을 인상하는 규제를 실시하여 중국 부자들이 미국 부동산으로 눈을 돌림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

2010년 4월 17일부터 적용된 중국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일부 도시 주택가격의 고속 성장 억제에 관한 국무원 통지였다. 정책의 내용으로는 우선 2주택은 기존 대출금리의 1.1배를 인상하며 3주택 이상은 현금지출 최저비율과 금리 대폭 인상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대출 잠정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다. 1년 이상 납세 증명 및 사회보험 납세 증명할 수 없는 비거주자 역시 주택 구매에 대해 대출 잠정 중단 가능하다. 개인 주택소비 및 부동산 이익 조정 등 세수정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이며 부동산 개발상 주식발행 증자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이 있다.

출처: KIEP, 대신증권, 신문 내용 종합 정리

□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부 프로그램을 제공


-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의 벤처 기업에 최소 50만 달러를 투자해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EB-5와 같은 프로그램이 대표적
- 이러한 정부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동산 중개인과 개발업자들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대서양 미국 추천 펀드' 패키지는 EB-5의 승인을 받아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이 패키지 구입시 마이애미 해변 근처의 콘도를 구입하는 등의 구매를 유도

□ 한편 중국인의 이러한 매입동향은 과거 일본인의 미국 부동산 매입과 비교되고 있음

- 과거 1980년대에는 일본인들이 미국 부동산 매입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으나, 장기 불황이 이어지며 일본인들의 유입이 크게 감소
- 그러나 중국인들은 사전에 수익률을 고려하여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등 훨씬 조심스럽게 시장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임
- 또 다른 비교 요인으로 일본인들은 담보대출 등 '빌린 돈'으로 매입한 물량이 많았다면, 중국인들은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직접 매입

□ 중국인들의 호화 저택 매입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주춤했던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차이나머니가 메워주고 있음
 - 멕시코 및 영국 자본들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는 현실에서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은 해외 부동산 시장 중개업자들에게 대단히 이상적인 매입자로 평가됨
- 중국인들은 주로 혁신적이고 사치성이 짙으며, 희소가치가 있는 고가 부동산 상품에 대한 구매경향이 강해 미국 부동산 시장의 거래액을 크게 증가시킴
 - 캘리포니아의 램버트 목장은 단풍이 늦게 지는 지역으로 유명해 중국인들에게 인기 있으며, 희소 상품인 적갈색 사슴도 매출이 증가
 - 미국인들은 이러한 중국인들을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사는 할리우드 연예인'으로 비유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웅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rocky87@hanyang.ac.kr)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형기 (curiaroman@hanyang.ac.kr), 양정렬 (yjddui@hanyang.ac.kr), 장은혜 (avechs@hanyang.ac.kr)